

지역민들 “배성범 중앙지검장 발탁 환영”

광주지검 개청 70년만에 지검장 핵심 요직 첫 직행 전두환 광주 법정 세우기 등 과거사 바로잡기 호평

배성범 (57·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장이 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뽑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검장 재직 1년 동안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8)씨를 광주 법정에 세우는 등 '5월 역사 바로잡기'에 기여하고, 故 '홍남순 변호사' 등 5·18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쓴 58명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등 '과거사 바로잡기'에서도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1948년 11월 부임한 신대익 제1대 광주지검장부터 배성범 제62대 지검장까지 광주지검을 거쳐간 지검장은 모두 62명이다.

이들 중 검찰 내 요직 중 요직인 서울중

양지검장으로 직행한 지검장은 배성범 검사가 유일하다. 다른 자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인물도 2명에 불과하다.

전국 최대 수사기관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릴 정도로 40여개 검사장급 자리 중 최고 핵심이다.

이 때문에 배 지검장처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곧바로 중앙지검장 자리로 직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은 서울중앙지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검장 보직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행코스 자체가 아예 막혀있기도 했다.

2017년 검사장급인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배성범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검사장급 임성의 물꼬가 다시 트였고, 그 후임으로 배 지검장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만큼 검찰 내에서 배성범 지검장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배 지검장은 공경하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검찰총장 인사로 흔들린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배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경남 창원 출신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 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하는 등 강력·특수·형사·기획 분야를 두루 경

험한 덕분에 검찰내에선 균형 있는 시적이 돋보이는 검사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에서 잡음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다.

오는 31일 중앙지검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배 지검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치·사회·경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반칙적인 범죄에 눈감지 않는 지검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 “검찰이 강자의 부당한 횡포나 갑질,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면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패·선거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덜 수 있는 민생 수사에 집중하고, 인권을 강화해 국민의 공감과 박수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때 계엄군 향해 발포한 건 정당방위” 징역형 60대,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선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쏘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중 석방하러”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

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및 소총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도 재심을 통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결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이유로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광주지검장에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 부장

검찰, 검사장급 간부 인사

신임 광주지검장으로 영광출신 문찬석(58·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기획조정 부장이 부임한다. 박관택(53·21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을 맡고,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담양 출신인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 광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31일자로 단행했다.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했으며,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 장에는 이성운(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 부장이 전보됐다.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관련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안부장은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승진과 동시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조율한다.

신임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영광출신으

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급격한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대전·대구 등 고등검사장 3석과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 2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자금 수수’ 고길호 전 신안군수 감형... 벌금 7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고길호(74) 전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고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기준에 차용한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변제 행위를 정치 권력의 획득·유지를 위한 직접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마 끝... 광주·전남 불볕더위 본격 시작

11개 시·군 폭염주의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듯

많은 비를 뿌렸던 올 여름 장마가 끝나면서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북상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29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이후 당분간 비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했다.

29일 오후에 중부지방에 있던 장마전선이 북한지역으로 올라가 올 여름 장마는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

와 전남 11개 시·군(화순·나주·영광·함평·영암·순천·광양·장성·구례·곡성·담양)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어 광주·전남에 22일 밤부터 옛새끼 이어진 열대야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고,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가장 높을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위 날려요”신나는 물총싸움 27일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일원에서 열린 ‘제1회 무등물총축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물총싸움을 즐기며 더위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 해 뜨는 시간 05:39 🌄 해 뜨는 시간 02:33
 🌧️ 해 지는 시간 19:39 🌄 해 지는 시간 17:01

다시 폭염과의 전쟁
 구름 많고 낮기온 올라 매우 덥겠다.

광주	맑음	25/33	보성	맑음	23/32
목포	맑음	25/31	순천	구름 많음	25/33
여수	구름 많음	25/29	영광	맑음	25/33
나주	맑음	24/33	진도	맑음	24/32
완도	맑음	24/32	전주	맑음	25/33
구례	구름 많음	24/33	군산	맑음	25/32
강진	맑음	24/32	남원	맑음	24/32
해남	맑음	23/32	흑산도	맑음	23/28
장성	맑음	24/3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1.0~1.5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2.0 남~남서

◇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 주간 날씨

30(화)	31(수)	8/1(목)	2(금)	3(토)	4(일)	5(월)
☀️	☀️	☀️	☀️	☀️	☀️	☀️
25/33	25/33	25/33	25/34	25/35	25/35	25/35

헝가리 수영선수가 클럽서 여성 성추행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 남자 선수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긴급 출국금지 조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헝가리 국적의 수영선수 A(2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댄스 공연 중이던 여성 종업원 B(20)씨의 신체를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행들과 함께 클럽을 찾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자국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경영종목에 출전했고, 2016년 리우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 헌재 합헌 결정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삼법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

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자 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동료 사병 AD카드 빌려 광주수영대회 관람하려다 ‘발각’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원 나간 육군 병사들이 동료 병사의 대회 등록인증카드(AD카드)를 빌려 수경경기를 관람하려다 발각돼 사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한방대행.

○···28일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A 일병과 B 일병 등 현역 병사 2명은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께 동료 병사들에게 발급

된 AD카드를 이용, 광산구 남부대에 마련된 수경 경기장에 들어가려 했다는 것.

○···A 일병 등은 경찰조사에서 “최근 다친 동료를 대신해 남부대 주차 관리 임무에 교체 투입됐는데 AD카드를 미처 받지 못했다”며 “조직위와의 협약에 따라 동료의 AD카드를 휴게실이 있는 주경기장을 출입하던 중, 실수로 수경 경기장을 들어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